

**2011.02.28 미래정책연구실**

※ 본 자료는 지난 2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“이명박정부 출범 3년, 농식품 생산액 증가 등 성과와 향후 핵심 과제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**□ 새정부 출범 3년 농식품 분야 성과**

**1. 농식품 산업의 체질을 개선**

**가. 농수협 개혁 등 농식품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**

- 농·수협의 경영개선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**농·수협 개혁** 추진
- 정부·농어업인 단체·민간전문가 등의 참여하에 보조금 개편 등 **농어업 선진화**방안을 마련('09)
  - 경쟁력 강화, 소득안정, 미래성장동력 등 54개 의제를 발굴하고 42개 과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
- 농식품 **R&D 추진체계** 개편 및 R&D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
- **종자·생명산업**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업유전자원의 체계적 보존·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동식물자원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한편, 품종보호권 강화와 수입대체·수출 전략 품종 육성 등을 통한 종자 산업 육성을 추진
- 농식품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**모태펀드**를 결성('10)하고 간척지를 중심으로 수출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**대규모 농어업 회사**(7개업체, 1,310ha)와 첨단 유리온실 단지 조성을 추진

**나. 정체되었던 농어업 생산액·농림어업 GDP 등이 증가세로 전환**

- '05년 이후 41조원 수준에서 정체되었던 **농림어업 생산액**은 '08년부터 큰 폭의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, '09년에는 '08년 대비 8.4% 상승한 49.9조원

으로 증가

- 경제위기로 감소되었던 농림어업 GDP('07:25.2조원 → '08:24.7)도 '09년부터는 증가세로 전환('09:24.9조원)

**다. 규제의 대상이던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전략산업으로 육성**

- 식품산업진흥법('08.6.28)을 제정하고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('08.11.3)을 수립하여 **식품산업을 육성**
  -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, 쌀 가공식품 활성화, 한식세계화, 우리술 산업 경쟁력 강화, 식품산업 R&D 투자 확대,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전략 등을 추진
- 그 결과 **식품산업의 매출액**은 '07년 107조원에서 '09년 131조원으로 증가하였고, **농식품 수출액**도 '07년 41.5억불에서 '10년 59억불로 증가
- **쌀 가공산업 육성**으로 쌀 가공업체 수 및 가공용 쌀 소비량도 큰 폭으로 증가
  - ※ 쌀 가공업체 수 : ('07) 556 개소 → ('09) 639 → ('10) 761
  - ※ 가공용쌀 소비량 : ('07) 18 만톤 → ('09) 22 → ('10) 30
- 또한 **막걸리**는 민간전문 연구기관에 의해 히트상품 1위로 선정('09)되고, **한식**도 국가브랜드지수중 파인다이닝 분야에서 6위('09)에 오르는 등 대내외적으로 한식세계화의 붐을 조성

**2. 농어가의 경영안정 지원**

**가. 농어가 부담경감을 위한 사료, 비료 등 지원**

- 축산농가의 사료구매 지원을 위해 **특별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**('08~'09 : 2.5조원), 화학비료의 한시적 지원 및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 확대, 농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한도량을 확대
- 농기계은행 등 **농기계 임대사업** 활성화를 통해 농기계비용 절감
  - ※ 구입비용 절감효과 : ('08) 899 억원 → ('10) 2,429

## 나. 농어업개요보험·경영외생지원 농지매입사업·농지연금 등 농어의 경영·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지속 확충

-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가축, 양식수산물, 농어업용 시설물까지 확대하고 대상재해도 자연재해 외에 병충해·화재 등으로 확대
-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해 **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 사업**의 매입대상 및 지원기준을 완화
  - ※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: ('08) 1,195억원 → ('09) 1,700 → ('11) 2,400
-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는 **농지연금제**를 신규 도입
  - ※ 농지연금('11) : 15억원, 500농가

## 3. 국민생활을 위한 안전 농식품의 안정 공급

### 가. 안전 농식품 공급체계 구축

- GAP·HACCP 등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 확대 및 안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로 선진국 수준의 농식품 안전성 적합률 유지
  - ※ GAP·HACCP 생산비중 : ('07)1.6%, 45% → ('09) 3, 60 → ('10) 4, 70
  - ※ 안전성 적합률('10) : 농산물 97.8%, 축산물 99.8, 수산물 99.4
- **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면적**도 '07년 129천ha에서 지난해에는 202천ha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
  - ※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면적 : ('07) 129천ha → ('08) 174 → ('10) 202
- **음식점 원산지 표시제** 확대('08.12월), 이력제 도입 확대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, 농축산물의 유통투명성 제고

### 나. 농수산물의 경쟁력 공급체계 구축

- 농협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와 직거래 등을 통한 유통단계의 축소 등

### 농산물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편 방안 마련('11.1월)

- 시세 예측 중심의 관측기능 강화, 농협의 계약재배 및 포전거래 비중 확대, 사이버 거래소 확대, 김치산업 육성 및 비축 확대, 도매시장 거래를 경매 외에 정가·수의매매의 비중 확대 추진 등
-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쌀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기 위한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대책 수립('11.2월)
  - 쌀 수급안정의 제도화,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유통체계 개선, 쌀 가공산업의 육성 등을 추진
- 곡물의 안정적인 국내 도입을 위한 **해외 농업개발 및 국제곡물 조달시스템** 구축 추진
  - 해외농업개발 추진('10) : 러시아, 우크라이나 등 16개국, 68개 업체
  - 유통공사가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,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유통시설을 확보하는 국제곡물조달시스템 구축('11 : 200억원)

## 4. 농촌지역에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

### 가. 제2차 삶의 질 향상 5개년('10~'14년) 계획 수립('09.12월)

- '14년까지 의료·교육 등 7개 부문 133개 과제에 34.5조원 투자
- **농어촌서비스 기준, 농어촌 영향평가** 등 2대 선진제도 도입
  - 주거, 교통, 교육 등 8개 분야 31개 항목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 마련
  - 정책 입안 단계부터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도입

### 나. 농어촌 지역의 산업화 발전역량 및 인프라 확충 추진

- 농어촌 지역의 유·무형 자원을 활용한 산업화를 지원하고, **농공단지** 49개소를 신규로 지정·조성 지원('08~'10 : 1,549억원 투자)
- 녹색농촌체험마을, 테마공원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한 방문객 및 매출액 증대

- 귀농·귀촌 종합대책을 수립('09.4월), 농촌일자리 창출과 도시민의 농촌 인력유입 촉진

※ 귀농가구수 : ('07) 2,384호 → ('08) 2,218 → ('09) 4,080

#### 다.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 및 생활여건 개선·복지 지원을 확대

- 주택개량자금 지원 및 취약계층의 노후주택 개보수 추진

※ 주택개량 실적 : ('08) 2,400억원 (6천동) → ('10) 4,000 (8천동)

※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실적 : ('08) 38가구 → ('10) 165

- 마을-소생활권-거점면을 연계하여 체계적인 개발 추진('11 : 9,312억원)

- 복지향상을 위한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영유아 양육비·학자금지원

※ 연금 보험료 연간 지원액: ('07) 28만원 → ('10) 39

※ 영유아 1인당 연간 지원액: ('07) 151만원 → ('10) 153

※ 대학생 학자금 지원 실적 : ('07) 26천명/292만원 → ('10) 31/326

### □ 양우 핵심 정책과제

#### 1. 이상기후·자연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

##### 가. 기후변화·자연재해에 선제 대응

-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,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품종·기술개발 등 적응 역량을 강화

-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한 예측·평가능력 강화

- 신작물 도입, 내재해성 품종 개발, 재배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재배 기술 개발 등 품종·기술개발 능력 제고

- 농어업 재해보험 확충 등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 위험에 대비한 농어가 경영안정장치 확충 노력도 병행

- 이상기후에 대비한 농어업재해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

- 재난정보 종합시스템 구축 및 재해관리 체계 정비

-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수준 확대 등 지속 추진

#### 나.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

-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안정 체계를 보다 강화

- 농업관측을 강화, 태풍 등 기상급변시 수시관측을 실시하여 수급변동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

- 계약재배, 수매·비축, 가공품 확대 등 유통조절 기능 확대

- 곡물 확보 수단을 다양화하여 곡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

-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등을 통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 제시

- 쌀 중심의 논 농업을 다양화하고 쌀을 활용한 가공제품 확대

-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조기 확대 추진

- 해외농업 개발을 통한 곡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

#### 2. 생산자·소비자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

- (추진방향) 농협의 역할 확대를 통해 유통비용 감소와 수급안정 도모

- 정부는 시장실패의 보완 차원에서 가격안정 기능 강화

- (농협 물량 확대) 산지유통인 중심에서 농협으로 단계적 확대

- 목표(채소): ('10) 475천톤(8% 수준) → ('11) 906(15) → ('15) 3,004(50)

- (유통단계 축소)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직거래 활성화 추진(현행: 5~7단계 → 개선: 3~4단계)

- (기타 제도개선) 농업관측 내실화 및 비축·가공 기능 강화와 도매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『농안법』 개정 추진

#### 3. 가축방역체계 개편 및 축산업 선진화 추진

- 농식품부 장관을 T/F 단장으로 하는 「축산업 선진화 T/F」 및 전문가

등으로 자문단 구성(2.15일) · 운영 중

- 금번 구제역 발생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**방역시스템** 정비
  - 구제역 매뉴얼 정비, 매몰처분 보상기준 개선, 백서 발간 등
- 국내 축산업 현황과 문제점,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축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
  - 축산정책의 기본방향 재정립, 축산업 허가제, 축산농장 출입차량 등 록제 및 위치추적시스템(GIS) 도입 등 검토
  - 효율적인 방역업무 추진을 위한 (가칭)농림수산물식품검역검사본부 설립(수의과학검역원, 식물검역원, 수산물품질검사원 통합) 등

#### 4. 농어촌의 활력 창출

- 농어촌에는 특산물, 전통문화 등 다양한 유·무형 자원 존재하며, 이를 활용한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 창출이 필요한 시점
  -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리더를 중심으로 농어촌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지역이 활성화되는 사례 증가
  - 생활패턴 변화로 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관심 증가
  - 농어촌 정책이 **사업공모방식, 포괄보조금제 등 상향식**으로 전환되어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
- 농어촌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도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운동 전개 추진
  - 농어촌 주민이 스스로 농어촌의 가치를 발견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농어촌의 희망을 갖고 지역발전 도모
  - 농어촌을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이 함께 할 미래의 공간으로 조성
- 마을, 지역주민이 효과적으로 마을 발전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
  - 긍정적 사고, 창의적 발상, 적극적 실천력을 지닌 농어촌의 변화를 이끌어

갈 수 있는 인력 육성

- 지역에서 공무원, 기업가, 교수, 문화예술인 등의 자발적 참여로 마을 주민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농어촌 현장포럼 운영
- 경제·사회·문화계·시민단체 등으로 범국민 참여본부 구성